

‘오미크론 정점’ 3월 사망자수 역대 최대

출생아수 2만2925명...4.2% 감소

사망자수는 4만4487명...67.6% 증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수가 정점에 이르렀던 지난 3월 사망자가 4만 명을 훌쩍 넘어 1983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76개월째 내림세를 보이며 3월 자연 증가분은 2만 명을 넘어 인구 절벽이 더욱 심화됐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만292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1009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계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한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6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아기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

는 조출생률은 5.3명으로 1년 새 0.2명 쪼그라들었다.

오미크론 영향으로 사망자 수는 그야말로 폭증했다. 3월 사망자 수는 4만4487명으로 전년 동월을 비해 67.6%(1만7937명) 증가했다.

1983년 1월 통계 집계 이래 사망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모든 월과 비교해도 역대 최대치다. 그 전에는 2018년 1월 3만 1550명이 최대 사망자 수였다.

증가 폭으로 봐도 사망자 수 증가율이 6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망률 역시 10.2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역대 가장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동안 (사망자 증가 이유로) 고령화를 많이 얘기했는데 증가율이 이렇게 센 적이 없었다”며 “3월에 오미크론 유행이 심했

을 때라 코로나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며 지난 3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분은 -2만1562명으로 이 역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2019년 11월부터 29개월째 연속 자연 감소가 지속되며 인구 절벽이 가팔라지고 있는 추세다.

분기 별로 봐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소,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다. 올해 1분기(1~3월) 출생아 수는 6만8177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8%(1993명)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1분기 최소 기록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여성 1명(15~49세)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6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0.02명 감소했다. 이 역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다.

연령별로는 25~29세 여성의 출산

율이 4.3명 감소했다. 24세 이하 여성(-0.7명)과 30~34세 여성(-1.8명)도 출산율이 떨어졌다.

반면 35~39세 여성의 출산율은 1.5명 늘었다. 40세 이상 여성도 출산율을 0.5명 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사망자 수는 10만3363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33.2%(2만 5788명) 증가했다.

통계 집계 이래 모든 분기와 비교해 가장 많은 사망자 수와 가장 큰 증가 폭이다.

3월 동안 결혼도 이혼도 더 적게 했다. 3월 혼인 건수는 1만5316건으로 1년 새 8.6%(1446건) 감소했다. 지난 2월 혼인 건수가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혼 건수는 지난 3월 동안 7882건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3.1%(1192건) 줄었다. 혼인 건수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줄면서 이혼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뉴시스

美 뉴욕주의회서 한국 김치 행사 성황

aT, 김치의 날 제정과 연계해 미국 내 김치 소비 촉진



김치 중추국 한국의 위상을 확고히 한 김치 홍보행사가 뉴욕주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미국 현지시간 24일 ‘뉴욕주 김치의 날’ 제정을 기념하고 한국 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뉴욕주의회에서 현지 오피니언 리더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김치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11월 22일로 고정된 ‘김치의 날’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한국에서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미국에선 지난해 8월 23일 캘리포니아주가 최초로 제정했으며, 올해 버지니아주(2월 9일)를 시작으로 뉴욕주(2월 17일)도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한국이 김치 중추국을 미국 전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24일 뉴욕주의회에서 열린 홍보

행사는 의사당 내에 김치 홍보관을 설치하고, 뉴욕주 상·하원 의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다양한 김치 제품과 다채로운 재료 등 관련 홍보자료를 전시해 한국 김치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 김치를 주제로 한 백김치 슬러드, 김치 슬라이더 등 패어링 푸드 메뉴가 제공되는 시식 행사를 통해 김치와 가장 잘 어울리는 현지 음식 찾기 이벤트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aT는 미국의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한국 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열흘간 미국 전역에 문을 연 에이치 마트(H Mart) 매장서 한국 김치 홍보행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여기에 버지니아주 김치의 날 제정 연계 홍보행사도 미국 현지시간으로 26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주기호 기자

광양만권경제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맞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 경제청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이충열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지난 24일 광양만권경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역전략산업 발전과 투자유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중견련은 2014년 제정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중견기업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로, 중견기업이란 상시직원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3년 평균 매출 1500억 원 이상의 기업을 말한다. 주요 회원사는 약 800개 사이며 그중 세아제강 등 8개사가 광양만권에 입주해 있다.

간담회에서 이충열 본부장은 중견련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지역별·산업 분야별 IR을 개최하고 투자 의향을 가진 회원사를 초청해 광양만권 산업단지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

화재취약계층 안전시설 지원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YGPA)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해 주택용 안전시설 지원에 나섰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광양소방서에서 ‘취약계층 주택용 안전시설 무상보급 MOU’ 체결식을 갖고 취약계층 200가구에 2000만원 상당의 주택용 안전시설을 지원했다.

이번 사회공헌은 화재 발생에 따른 재산·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안전시설의 설치·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성현 사장은 “화재 발생 시 주택용 안전시설을 활용해 신속한 초기 진화로 재산 위험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공기예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의미를 더하겠다. 또한 앞으로도 ESG 경영을 바탕으로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체감경기 11년 5개월만에 최고

김포국제공항에서 시민들이 탑승수속을 밟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실적 BSI는 4월과 같은 86으로 집계됐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의 체감경기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25일 서울 강서구

/뉴시스

광주 대광로제비앙,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광주·전남중기청, 오는 31일까지 신청자 모집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기회가 주어진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31일까지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광주 금호지구 대광로제비앙’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금호지구 대광로제비앙’은 8개동 361가구로 이 중 1가구를 특별 공급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또는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추천자 선정은 재직기간, 각종 수상경력, 자격증 등의 가점요소를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진다.

단 일반유형 주택업, 무도유형 주택업, 기타 주택업, 기타 캠블링·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 근

로자는 제외된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주택 특별공급 추진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연중 무휴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리미 서비스 수신 희망자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힐스테이트 첨단 등 57가구를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들에게 특별공급 했다.

/권형안 기자

기아, 택시업계와 손잡고 ‘니로 플러스’ 보급 확대



기아가 택시업계와 손잡고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에 나선다.

기아는 지난 20일과 24일 각각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아와 택시업계는 ‘니로 플러스’ 택시 모델을 통한 친환경 전기택시 대중화를 가속화해 대기환경 개선 및 탄소배출량 저감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최장 배터리 보증·충전기 지원 등 고객 부담 낮춰

니로 플러스는 1세대 니로 EV를 기반으로 개발된 기아의 첫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Purpose Built Vehicle)다.

탑승객에게 여유로운 공간을 선사하기 위해 1세대 니로 대비 전고와 전장을 각각 80mm(1세대 니로 루프랙 미적용 기준)와 10mm 늘리고, 루프랙 높이를 높여 1열과 2열 헤드룸을 각각 50mm, 64mm 추가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내비게이션, 앱 미터기, 디지털운행기록계(DTG), 음성인식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이 통합된 ‘올인원 디스플레이(All-in-One Display)’가 탑재돼 운전자의 편의를 고려했다. 운전자가 손쉽게 동승석 시트 위치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워크인 디바이스 기능도 기본 적용됐다. 기아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니로 플러스 택시 모델의 경쟁력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와 시승회를 열고 택시 조합원들이 친환경 전기택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전압 배터리 보증에 대한 택시업계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기아는 일반 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택시의 특성을 고려해 택시 모델에 한해 고전압 배터리를 업계 최장인 10년·30만km까지 보증한다.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배터리 리퍼비시 서비스(Battery Refurbish Service)’도 시행한다.

코스모뷰티 베트남 박람회 참가하세요

전남도, 화장품·미용 중소 수출기업 내일까지 모집

전남도가 화장품·미용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2022 베트남 화장품 미용 박람회’ 참가기업을 27일까지 모집한다.

베트남 화장품 미용 박람회는 8월 24~26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다. 올해로 13회째다. 헤어·네일·살롱, 화장품, 전문 미용기기 등을 아우르는 동남아 최대 전시회로,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미용 박람회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온라인 몰 성장세가 가장 높다. 소비자의 편의성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는 페이스 북 샵과 인스타그램과 같이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온라인 유통 채널이 발달하고 있는 시장이다.

전남도는 전년도 수출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지역 화장품·미용 제품 수출 중소기업 중 현지 시장 진출 가능성을 감안해 6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참가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전상담회, 버스 임차료, 장차비, 현지 통역비, 항공료 등을 지원한다.

참가를 바라는 기업은 전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증빙서류는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국제협력관실(061-286-2452)이나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061-943-9400)로 문의하면 된다. /권형안 기자

지갑에 현금 5만9천원...신용카드 선호

20대 체크·직불카드...60~70대 현금 가장 선호

코로나19 이후 네이버·카카오 등 모바일금융 이용 확산

지난해 지갑 속에 보유한 현금이 평균 5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주로 이용하는 지급수단으로 10명 중 4~5명이 신용카드를 선택한 영향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이후 모바일금융 서비스 이용 확산도 눈에 띄는 추세다.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지속되면서 향후 모바일금융 서비스 이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 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이 보유한 현금은 평균 5만 9000원으로 2019년 조사 당시(5만 3000원)보다 6000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은이 지난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5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지난 2013년 조사 이후 지난해 조사까지 지급수단으로서의 현금 이용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2019년에 비해 현금보유액이 늘었다. 이 가운데 50대가 7만4000원으로 가장 많은 현금을, 20대가 2만 9000원으로 가장 적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급수단으로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조사에 이어 지난해도 신용카드가 이용금액(49.5%)과 이용건수(43.4%)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용카드에 이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급수단은 체크·직불카드와 현금이라고 응답했다.

2019년 대비 이용비중(건수 기준)의 경우 현금은 26.4%에서 21.6%로, 체크·직불카드는 19.2%에서 18.1%로 축소된 반면 모바일카드는 3.8%에서 9.0%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모바일금융 서비스 이용 확산도 두드러졌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65.4%(2313명)가 최근 1개월 내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말하는 모바일금융 서비스는 은행, 증권, 카드, 정보기술(IT)기업(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이 제공하는 상거래대금 결제, 잔액·거래내역 조회, 송금·금융상품 가입 등을 말한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 모바일 금융 서비스 이용빈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질문에 대해 증가했다는 응답이 42.1%를 차지했다. /뉴시스